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승보공양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승보공양을 선포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병선 추진위원장,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포교원장 지원 스님,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대웅전에 모인 불자들이 ARS로 동참하고 있다.



이날 조계사 대웅전에는 300여 불자들이 모여 승보공양을 서원했다.



선포식 이후 CMS 약정을 진행하는 추진위원들.

# “스님들 노후가 편하면 수행이 절로”

## 조계종 출가열반절 법회 및 승보공양 실천운동 선포식

“그동안 힘든 일이 있을때마다 사찰을 찾아 스님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그동안 스님들에게 받은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갚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절에서 기도를 집전해주셔서 가족 건강을 항상 기원해 주셨어요. 많은 스님들이 노후를 걱정하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종단에서 기금을 모은다는 말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왕자의 직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로 떠난 출가제일인 3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원, 조계종 총무부장)는 3월 19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가열반제일 정진법회 입재식과 함께 승보공양 실천운동 선포식을 병행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진행하는 승보공양 실천운동은 요양비와 입원치료비가 없는 고령의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단 차원의 모금운동이다.

불교에서는 재가자가 승단을 외하고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해왔다.

무소유 원칙에 따라 스님들은 출가하면서 속세와 인연을 끊고, 모든 재산은 삼보정재에 편입된다. 대부분 스님들의

월 보시액은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스님들이 다수다.

그러다보니 노후가 되거나 큰 병을 앓게 되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특히 선원이나 사찰에서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들의 경우 노후가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현실은 사제 축적의 주

**조계종, 종단 차원 승보공양 운동**  
3월 19일 선포식, ARS 진행  
300여 불자 승보공양 서원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날 정진법회 입재식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증명법사로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이기홍 중앙신도회 회장 등 재가 불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열반제일인 3월 26일까지는 전국 사찰에서 매일 108배 참회발원 정진법회가 진행되며 승보공양 일환으로 CMS와 ARS 기금 모금이 실시된다. 참가자들은 출가열반절 수행 일지를 통해 자신의 정진을 되돌아 볼 수 있다.

“조계종 신도 일동은 승보공양 실천운동이 21세기 출가 대중의 공동체 회복 운동임을 자각하고 불국정도가 화현되는 그날까지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진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류병선 조계종 중앙신도회 승보공양 실천운동추진위원장의 발원문 선장으로 시작됐다. 사회자의 취지를 알리는 말과 함께 재일법회를 기해 조계사를 찾은 수많은 불자들은 발원문을 따라 읽으며

**26일까지 108배 참회 발원 법회**  
요양비 없는 스님 우선 지원  
포교원, 중앙신도회 등 동참

승보공양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입재식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출가정신은 삶을 바르게 관조하라는 것에 있다”며 “일주일간 정진하며 새로운 자기를 만드는 용맹심과 함께 주변을 돌보는 자비심을 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 스님의 법문 이후 승보공양 홍보 동영상 상영과 함께 ARS 동참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대웅전에 모인 불자들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승보공양 ARS에 동참했다.

재일 기도를 위해 조계사를 찾은 김명숙 씨는 “ARS전화로 한푼 두푼 보시한 돈이 나이드는 스님들의 노후와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다니 절로 돕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법회가 끝난 뒤 지원 스님과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류병선 승보공양 실천운동 추진위원장 등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승보공양 후원 부스를 찾아 약정서에 서명했다.

한편, 승보공양 운동이 시작된 직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조합(위원장 심주완)은 전 총무원들의 후원 동참서를 승려복지회 회장 지원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날 후원에 동참한 총무원들은 120명으로 108배 1배 당 100원씩 매일 10800원을 후원한다.

심주완 위원장은 “1주일간 약 120여 명이 후원에 참여했고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스님들이 출가에서 열반까지 수행과 정법교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려복지회장 지원스님은 “승려노후 복지에 마음을 모아준 총무원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우리 스님은 우리가 모신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ARS 동참 (060)700-1077, 1회 통화에 3000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승보공양 운동은 출·재가 화합 계기”

### 류병선 승보공양 추진위 위원장

“스님들 노후 마련을 위한 재가자들의 승보공양 운동은 향후 불교계에서 출가자와 재가자가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류병선 승보공양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74세, 범명 보광월)은 출가열반제일을 맞아 19일 승보공양의 의미를 강조했다.

승보공양운동추진위원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홍)가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추진하는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결성된 단체.

‘승보공양추진위원회’는 중앙신도회 회장단이 전원 참여한다. 류병선 위원장은 현재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이자 대구 동화사 및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벨벳부문 세계 생산 및 수출 1위 기업인 영도벨벳을 이끌고 있는 류병선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구지역 불자와 신도조직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류병선 위원장은 평소에도 영도벨벳의 성공을 비롯한 모든 일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피덕분이라고 밝히는 독실한 불자.

남편인 故 이원화 전 회장과 함께 1960년 영도벨벳을 세우고 1995년 직기 180대를 증설하는 등 사업확장에 나섰지만 IMF사태로 인해 워크아웃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초심으로 되돌아가자고 마음을 먹은 류 위원장은 마이크로벨벳을 개발하면서 재기에 성공한다.

류 위원장은 “당시 회사 사원들과 그에



따른 수많은 사원 가족들을 생각하며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니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셨던 것 같다”며 “당시 부처님의 가피가 없었다면 회사는 문 닫았을 것이

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장을 맡은 뒤 동화사의 팔공총림 지장, 비슬산 대견사지 복원,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등에 기여해왔다. 류 위원장은 2011년부터 펼치고 있는 장학사업을 확대해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의 학업을 돕는 장학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던 중 이기홍 중앙신도회 회장의 승보공양 발원의 뜻을 접하고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며 “전국의 신도들이 한마음을 모으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를 밝혔다.

류 위원장은 끝으로 “가톨릭의 경우 신부님들이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직자 후원회에서 일정 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은퇴 사제관을 지어 기거할 곳도 제공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스님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려노후복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개정판

개정판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고 불신으로 한국 땅에 오셨음을 증언한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 추천본사 - T.033-243-1795, 243-1787

• 불서총판 운주사 - T.02-3672-7181

•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